경제분석 | 2025.07.14

매크로 주간 인사이트 (7월 3주)

생각보다 많이 쟁겨놓은 한국의 가계자금

Economist 정원일 | 경제분석
02-3779-3140
wi.jeong@sangsanginib.com

QR코드로 간편하게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채널

Fact check: 1분기 자금순환, 가계자금 운용 역대 최대

지난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부문 **순자금운용 규모는 18.5조원을 기록**하였다. 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거래액에서 금융부채거래액을 차감한 값으로 (+) 수치는 순자금운용, (-) 수치는 순자금조달로 구분된다. **가계 부문에서의 규모는 92.9조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 수치인 62.6조원에서 크게 상승하여 역대 최대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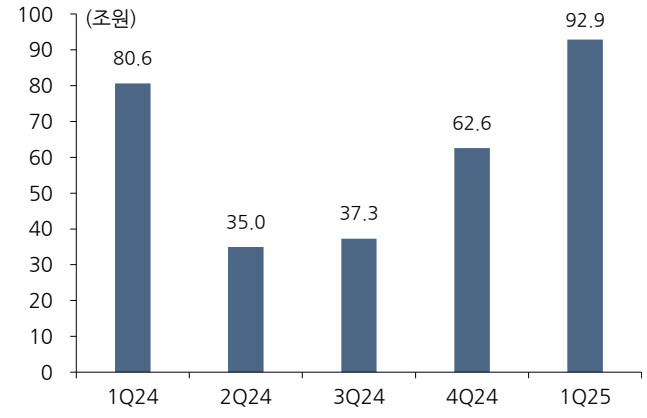
View point 1: 자금운용, 유가증권시장으로 유입

가계의 자금운용 금액 변화를 보면, 금융기관 예치금과 유가증권 운용에서의 증가폭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치금이라는 것은 투자 혹은 소비지출에 대비해 준비해 놓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불황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보험 및 연금 준비금 항목이 크게 감소한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하는 가계의 태도가 위험 완화적으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자금 여력이 현재의 정책과 결합하여 유가증권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View point 2: 민생안정 지원금, 자금운용보다 실물경제의 지출로 이어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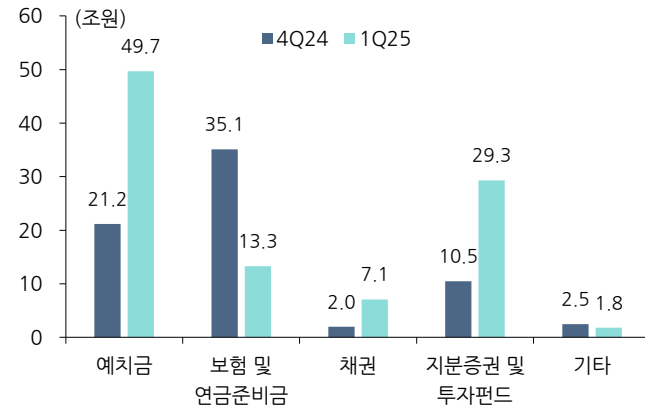
특히 조만간 지급될 예정인 지원금은 자금순환 측면에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 따라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될 수 있는 민간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는 추가로 확대되어 **실물경기 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가계의 순자금운용(여유자금) 규모는 역대 최고를 기록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보험 및 준비금 감소와 예치금 증가는 향후 투자여력 확보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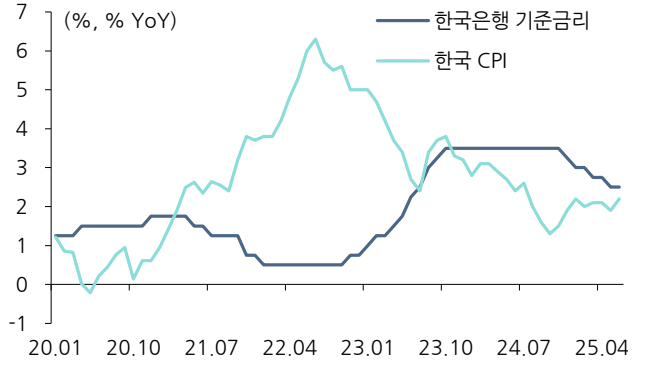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주간지표 다시보는 인사이트 (7월 7일 ~ 7월 11일)

-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동결. 부동산 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한 신중한 스탠스.
- 미국 NFIB 소기업 지수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 해고 건수 하락은 하드데이터에서 소기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부분
- 관세 수입 규모는 확대가 금년 미 재정 기조와 맞물리며 향후 상호 관세 정책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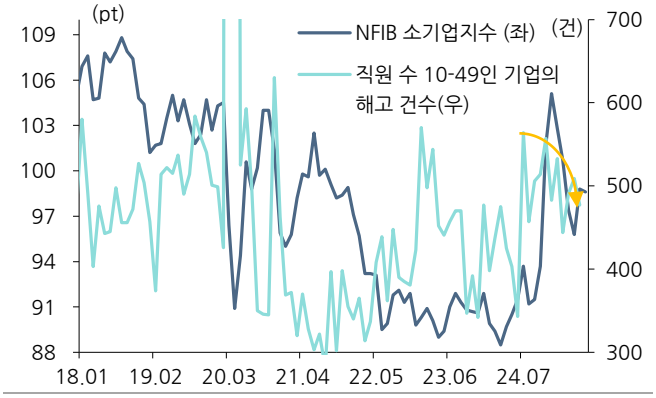
그림 3. 주택 시장 과열 우려로 한국 기준금리 2.50%로 동결



자료: 한국은행,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7월 금통위에서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을 경계하며 기준금리 2.50%로 동결
- 한국 6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하며, 5월 수치인 +1.9%에서 소폭 상승.
- 물가 수준과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고려했을 때, 금리 인하는 점진적으로 단행될 가능성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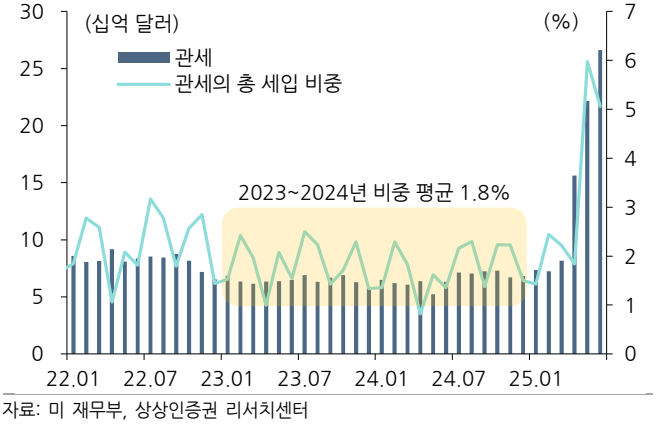
그림 4. NFIB 소기업지수는 기준 하회했으나, 해고 건수에서 회복 가능성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6월 미국 NFIB 소기업 기대지수는 6월 98.6pt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0.2pt 하락하여 전월과 유사한 수준.
- 직원 수 10~49인으로 구성된 소기업의 해고 건수는 2024년 하반기부터 감소 추세 유지. 소프트데이터의 부진과 달리 하드데이터에서 소기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을 확인.

그림 5. 6월 미국 관세 수입 증가, 총 세입 내 관세의 비중 동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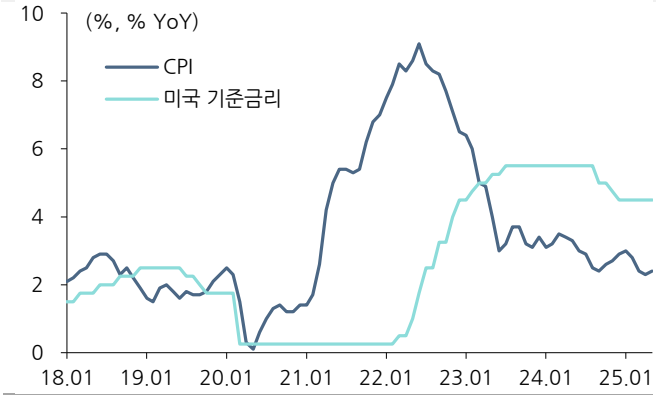
자료: 미 재무부,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연방정부 6월 재정 수지는 270억 달러 흑자를 기록.
- 7월 9일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된 가운데, 2분기 관세 수입의 증가세가 두드러짐. 관세의 총 세입 비중은 5.1%까지 상승하며 2023~2024년 평균치인 1.8%를 큰 폭으로 상회.
- 금년 미국 재정정책 기조는 재정수지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관세를 통한 세입 증가가 향후 대외정책의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성 점검 필요

매크로 주간지표 미리보는 인사이트 (7월 14일 ~ 7월 18일)

- 미국 CPI 상승률은 둔화 추세가 지속되나, 여전히 통화당국의 목표치인 2%를 상회. 6월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연준은 관세가 물가에 가할 충격에 대하여 우려하는 상황.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6월 CPI에서 관세 영향이 가시화 되었는지의 여부에 집중될 전망.
- 중국 6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하며 하락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중국 정책 당국의 적극적 내수 부양책 효과로 소매판매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므로 15일 발표 예정된 2분기 GDP 성장률 또한 우려 대비 양호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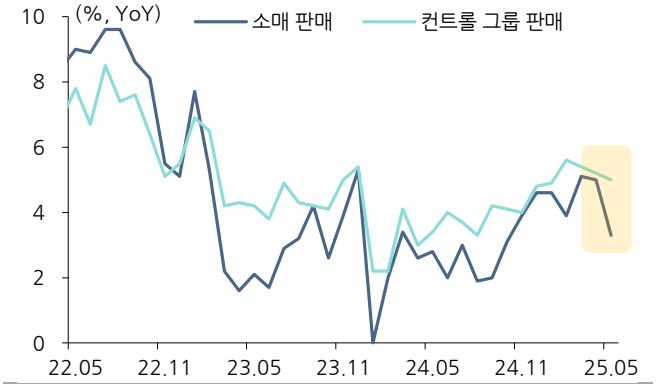
그림 6. CPI는 안정세이나 통화당국의 관망 스탠스 지속될 가능성 존재



자료: Fed,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5월 CPI는 전년비 +2.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유지하였으나, 6월 FOMC 의사록을 통해 연준이 관세가 물가에 가할 상승 압력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음을 확인.
- 7월 11일 기준 FedWatch의 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연내 2회에 집중되어 분포. 통화 당국의 관망적 스탠스를 반영하여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치 또한 연초 대비 낮은 수준으로 형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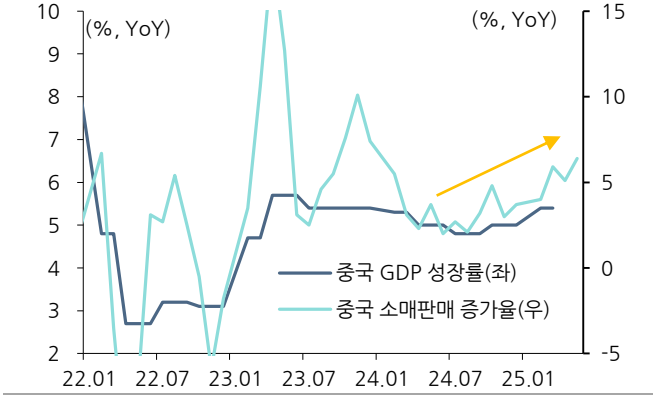
그림 7. 소매판매 컨트롤 그룹은 견조, 소비 경기는 우려 대비 양호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5월 소매판매는 전년 대비 +3.3%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였으나, 식품 서비스·가스·건축자재·자동차 품목을 제외한 컨트롤 그룹의 소매판매는 전년비 +5.0%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률을 보임.
- 헤드라인 지표 대비 컨트롤 그룹의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준 대비 소비 경기는 양호한 상황으로 판단됨

그림 8. 중국 내수 회복세 지속되며 2Q GDP 성장률 양호할 것으로 기대



자료: Bloomberg,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 중국의 2025년 1분기 GDP 성장률은 전년대비 +5.4% 증가하며 금년 양회의 목표치인 5%를 상회.
-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내수 부양 정책 효과로 2분기 소매판매의 전년비 증가율 또한 회복세가 이어지는 상황.
- 내수 경기 개선이 기대됨에 따라 2분기 GDP 성장률 또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

주간 경제지표 발표일정

7월 2주(7월 7일 ~ 7월 11일)

일자	국가	지표명	중요도	전월	예상	발표
7월 7일(월)	CH	외환보유액	중	$3285.3b	$3313.0b	$3317.4b
	EC	소매판매 YoY	중	2.3%	1.4%	1.8%
7월 8일(화)	JN	BoP 경상수지	상	¥2258.0b	¥3006.4b	¥3436.4b
	GE	수출 SA MoM	하	-1.7%	-0.5%	-1.4%
	GE	수입 SA MoM	하	3.9%	-1.7%	-3.8%
	US	NFIB 소기업 낙관지수	중	98.8	98.6	98.6
7월 9일(수)	US	뉴욕 연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하	3.2%	3.1%	3.0%
	US	소비자신용지수	중	$17.9b	$10.5b	$5.1b
	CH	PPI 전년비	상	-3.3%	-3.2%	-3.6%
	CH	CPI (전년대비)	상	-0.1%	-0.1%	0.1%
7월 10일(목)	US	FOMC 회의록	중	-	-	-
	JN	PPI YoY	상	3.2%	2.9%	2.9%

7월 3주(7월 14일 ~ 7월 18일)

일자	국가	지표명	중요도	전월	예상
7월 14일 (월)	CH	수출 YoY	상	4.8%	5.2%
	CH	무역수지	상	$103.2b	$113.2b
7월 15일 (화)	CH	GDP (전년동기대비)	상	5.4%	5.1%
	CH	소매판매 YoY	상	6.4%	5.2%
	US	CPI (전년대비)	상	2.4%	2.6%
	US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 전년대비	하	1.4%	--
7월 16일 (수)	SK	실업률 SA	상	2.7%	2.7%
	EC	무역수지 SA	하	14.0b	13.0b
	US	PPI 최종수요 YoY	중	2.6%	2.5%
7월 17일 (목)	US	수입물가지수 전년비	하	0.2%	0.3%
	US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상	227k	233k
7월 18일 (금)	US	주택착공건수	상	1256k	1295k
	US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	상	60.7	61.4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정원일)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